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추진 속도낸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변경고시 사업 반영

내년 기본·실시설계 착수...2028년 공사 착공 예정

고흥읍과 나로우주센터 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021~2025)’을 변경·고시함에 따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부터 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까지 31.7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6521억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규모다.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에는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 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 시장 및 핵심인프

라 등이 포함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도로는 국도 15호선이 유일하지만 왕복 2차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물류 이동에 한계가 있어 도로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로 확장은 고흥 우주발사체 첨단산업클러스터 조기 조성과 기업의 입주 지원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히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026~

2030)에 반영하는 대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021~2025)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으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율리 이 사업이 추진되면 고흥읍~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간 이동성과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기존 60분에서 20분으로 단축 (40분 절감)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우주발사체의 육상 운송체계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우주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이른 예산확보가 가능해진 점을 6만여 군민과 70여만 항우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업의 추진은 고흥군 발전을 위한 최대 성과이며, 국가계획 반영에 힘써준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베트남도 감탄한 ‘황금박쥐’ 할평군의 대표 가을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하이퐁시 전통무대극장 단원, 제한 베트남 교민 등 30여명이 최근 축제 현장을 방문해 선진 축제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 이들은 함평엑스포공원과 황금박쥐전시관 등에서 작품을 감상했다. 사진제공=함평군

정기명 여수시장, 중국 자매 우호도시 순방

정기명 여수시장이 중국 자매우호도시 순방을 통해 내년에 개최되는 2026 여수 국제섬박람회 참가 약정을 잇따라 체결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시장은 최근 웨이하이시와 리수이시, 샤오싱시 등 중국 자매우호도시를 순방하며, 한인회를 통한 섬박람회 해외 방문객 유치 협력과 각 도시 대표단 참가 약정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순방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외국인 참가단 모집 확대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정 시장은 중국 내 자매우호도시인 웨이하이, 리수이, 샤오싱 3개 도시를 차례로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웨이하이에서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정동권 한인회장과 임원, 여행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섬박람회와 여수 해양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

웨이하이 한인회는 박람회 개최까지 중국 한인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와 여



정기명 여수시장이 중국 자매우호도시 순방을 통해 내년에 개최되는 2026 여수국제섬박람회 참가 약정을 잇따라 체결했다.

행협회와의 협업을 통한 관광 교류상품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리수이시를 방문한 정 시장은 주린전 시장과 면담을 갖고 섬박람회 기간 리수이 대표단의 참가 의사를 확인했으며 실질적인 지원 협력을 위한 참가 의향서도 체결했다. 양 도시는 내륙과 해양의 상호 특성을 살린 교류 분야 확대에도 의견

을 함께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샤오싱시에서는 우당편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표단 참여를 확인받았으며, 외사관 공실을 통해 참가 의향서를 체결해 섬박람회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국외 방문객 유치 확대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2026국제섬박람회’ 참가 약정

해외 방문객 유치 협력 등 성과

며 “지속적인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돌산 전도지구를 중심으로 금오도, 개도 등 관내 섬 일원에서 개최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보성, 내일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피해 벼 전량 매입·수매도우미 운영 등 애로 해결

보성군은 11일 검백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에서 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포대별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보성군의 벼 생산량은 137만6000여 포대로 예상되며, 이중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총 26만827포대 (40kg)다. 품목별 매입물량은 일반벼 10만8257포대, 산물벼 6만7010포대, 친환경벼 5만780포대, 가루쌀 3만4780포대다.

특히 군은 올해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깨씨무늬병, 수발아 등 병해 피해가 발생해 벼 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 손실을 줄이고 저가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 (10~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물벼는 포대가 없는 상태로 매입되며 포장비 811원/40kg을 제외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농가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입월

말일까지 4만원/40kg을 중간 정산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산지 쌀값 확정 후 12월31일까지 지급한다.

또 군은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품종검정 제도’를 운영하며 올해는 ‘새청무’와 ‘조명1호’ 품종만 수매한다. 현장에서 표본검사를 통해 해당 품종 외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 아울러 군은 고령 농가와 부녀농 증가로 수매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수매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수매도우미는 2인 1조로 배치돼 상하차 지원, 계량 안내, 출하 현장 애로 해소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병충해와 수발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가 많았다”며 “피해 벼 전량 매입과 수매도우미 운영으로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구례, 청소년 해외 유적지 탐방 실시

중학생 20명 선발...백두산·안중근의사 기념관 등

구례군은 최근 청소년 해외 유적지 역사 탐방을 실시했다.

관내 성적 우수자와 저소득층 중학생 20명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한 유적지 역사탐방은 광개토왕릉비, 장수왕릉, 백두산, 환도산성, 안중근의사 기념관, 731부대 기념관 등 중국에 위치한 고구려 유적과 근대 항일운동 관련 지역을 찾아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교과서에서 접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

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탐방 소감을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청소년들이 교과서 속 역사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시야를 넓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과 역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청소년들의 역사 이해와 미래세대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고구려부터 근대 항일운동에 이르는 역사탐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김귀진 기자

광양시는 민생 회복과 지역 소비 촉진, 자금의 역의 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해온 1000억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종료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2022년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해 시민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인 광양시는 올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해보다 300억원을 늘려 1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10% 할인 판매를 실시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설과 추석 등 명절에 15% 캐시백 특별적립, 10~11월 2개월 간 13% 캐시백 적립,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5% 추가 적립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연계 운영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강화해 판매했다.

판매통로 전에 구매한 상품권은 종료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캐시백 적립도 가능하다.

정해중 시 지역경제과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덕분에 광양사랑상품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광양사랑상품권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보성군은 11일 검백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에서 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포대별 매입을 추진한다.